咸安趙氏
宗會報

發行人 : 趙鏞留
編輯人 : 趙英濟

發行處
咸安趙氏宗事運營會
慶南 咸安郡 郡北面 中岩里 29-1
TEL:(0552) 585-6788
FAX:(0552) 585-6788
부산연락처 : 626-1572

印刷處
도서출판국제·중앙인쇄문화사
TEL:246-5667·247-9904
FAX:246-2825

宗會報는 家統資料

西山書院, 法人 機能마비상태

16년간 任員陣 재구성 안해
새執行 機構만들어 活性化 시급

어계(漁溪)선생을 비롯한 생육신(生六臣)의 위패가 봉안(奉安)되고 있는 함안군 군북면 원북동소재 西山書院이 1984년 복원(復元)된 당시, 서원 보존대책등 내용을 담은 정관(定款)을 만들어 사단법인(社團法人)허가를 경남도로부터 받아 놓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법인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다.

뜻있는 인사들은 법인 정관을 손질하여 원장(院長)、이사장(理事長)、이사(理事)등 집행부를 재구성하여 건물 관리등 보존대책을 새로이 강구하고 법인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고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98년도 여름 태풍때、서원 경내 경앙문(景仰門)이 도괴상태에 이르렀지만 사단법인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종사운영회가 함안군청에 지원을 요청、보수하였고 지금도 건물 벽면 회(灰)가 떨어져 당장 보수해야 할곳도 몇곳 있다.

당시 법원에 등기된 이사들은 대부분 별세 했거나 고령이어서 이사회(理事會)를 소집할 기능마져 없는 상태로 건물은 해를 거듭 할수록 낡아가고 이대로 방치하면 건물에 이상이 생길 위험마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구성을 생육신 방손(傍孫)들까지 포함하여 거대하게 만들어야 할것이라 말하고 있다.

▲西山書院 전경

留守公 影幀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 18世紀 初 아우 觀我齋公이 그려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17일 유수공(留守公) 휘 영복(榮福·1672~1728)의 영정(影幀)을 보물1298호로 지정했다. 우리 함안조씨 집안에서 영정이 보물로 지정 된것은 최초의 일로서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 영정은 조선 숙종(肅宗)때 유수공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아우인 관아재공(觀我齋公) 휘 영석(榮祏)과 화공(畵工) 진재해가 그린 두점이다.

경상도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해 영백공(嶺伯公)으로도 불리는 유수공은 어계(漁溪)선조의 10세손이다.(상세한 글은 종회보 17·18호에 게재)

또한 그림을 그린 관아재공은 유수공의 막내동생으로 벼슬은 사헌부 감찰과 호조좌랑, 宜寧縣監, 安陰縣監, 白川郡守에 머물렀으나 조선왕조 후기에 활약했던 문인화가(文人畵家)로 산수화(山水畵)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 겸재(謙齋)와 현재(玄齋) 등 예단(藝壇)에 삼재로 유명하였다.

관아재의 작품은 1984년 5월에 발견되었는데 어선도(魚船圖)、출범도(出帆圖)、강상조어도(江上釣魚圖)등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설중방우도(雪中訪友圖)등 몇점은 후손인 서울의 鏞九종원이 소장 하고있다.(관아재공에 대해 차후 상세하게 소개 할 것임)

▲관아재공이 그린 留守公의 영정

99년 全國서 2천3백59만원
宗會報협찬금 公濟宗員등 모두7백64건

지난 한해동안 전국 일가님들의 적극적인 협찬으로 종회보가 예정대로 네차례 모두 발간되었다.

항상 제작비에 쫓기는 편집실의 고충을 이해하신 大邱화수회가 지난 연말 종회보 21호 제작에 보태 써라고 50만원을 송금 한것을 비롯, 대구화수회장을 역임한 鏞守 본회자문위원과 順麒 대구화수회장이 각각 30만원씩을 송금 해 주셨고 靑松 南浦公종중에서도 재실 중수(重修)기념으로 30만원을, 대구에서 동영염직을 경영하는 正來사장이 20만원을 보내주셨다.

농협부산지역본부장 (公濟)종원이 선조의 음덕(蔭德)을 입은 후손중에 자신도 포함된다면서 광고비를 포함, 1백만원을 쾌척해 주셨고 서울강남구 신사동에서 「가우치과병원」을 경영하는 軒濟원장이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헌성했고 昌原에서 변호사 개업하는 辰來종원도 앞으로 자주 협찬 하겠다면서 20만원을 보내 주셨다. 이밖에 執義公派 主敬齋종중에서 재실낙성 기념으로, 昌原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昌奎종원, 부산의 光濟·廷濟·서울의 東來종원등이 각각 10만원씩을 송금해 주셨다. 이렇게 99년도 4/4분기와 신년들어 계속적인 협찬으로 지난해 결산하여 이월된 금액과 13중실록 2차 보급 수입금등 포함하여 21호 신년호를 제작 할수 있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7백64건에 2천3백59만원이 답지 되었다.

98년에 비해 건수는 5건, 금액은 고액(高額) 협찬자가 많아 5백6만원이 많았다. 이같은 원인은 「선조의 음덕에 보답 하려는 정성어린 후손들의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도 변함없는 협찬 있으시기 바랍니다.

三所등 先祖묘사엄수

지난해 11월18일과 19일 이틀동안 함안 대문중 삼소(三所) 묘사가 수백명의 제관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 되었다.

첫날 오전에는 원북동 전서공(典書公) 묘역에서 전서공 선조 내외분과 어계선조의 둘째 아드님 좌윤공(左尹公)、그리고 절도공(節度公)、판결공(判決公)、도사공(都事公)의 묘역에서 거행되었다.

오후에서 자리를 하림으로 옮겨 시정공(寺正公) 묘역에서 시정공의 배(配) 성산이씨(星山李氏)를 시작으로 어계선조의 큰아드님 진산공(珍山公)과 참판공(參判公)、우후공(虞侯公)、참봉공(參奉公) 순으로 거행되었다.

다음날(음력 10월12일)은 법수면 강주리 웅암의 어계선조(漁溪)의 묘역에서 내외분과 선전관공(宣傳官公)의 묘사가 엄수 되었다.

이틀동안의 행사에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청송、광주、안동、마산등 각지역에서 3백여명의 제관이 참례했다.

이날 대구지방 경찰청 청장 昌來종원이 종사운영회에 50만원을 쾌척하고 타올 3백매를 제관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각처에서 보내온 헌성금과 헌성품은 다음과 같다. ▲趙昌來(대구지방경찰청장)=50만원·타올 3백매 ▲安東參知公宗會=30만원 ▲趙鏞洛(日本거주)=10만원 ▲趙一濟(서울·本會고문)=10만원 ▲趙衡來(大邱鄕校)=5만원 ▲趙台濟(靑松安德面)=3만원 ▲靑松望雲公派=3만원(대추대금) ▲趙潤奎(宜寧)=2만원 ▲趙洪濟(院北)=2만원 ▲趙禹來(釜山변호사)=웅암재 마루용 카페트 일조(80만원상당) ▲趙相來(咸安화수회장)=제주(祭酒)1상자 ▲昌原화수회=제주3되 ▲趙辰來(昌原변호사)=제주2되 ▲趙泰願(仁溪公宗孫)=제주2되 ▲趙洋來(判決公)=제주1되 ▲咸安청룡회=제주1되

1백년생 소나무 8그루
鷹巖齋 경내와 주변에 移植

종사운영회는 지난해 11월 5일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어계선조의 재사 웅암재(鷹巖齋) 경내와 주변에 1백년생 소나무 여덟그루를 옮겨 심어 재실의 미관이 새로워졌다.

이 공사는 서울에서 靑河농장을 경영하는 寧來종원이 맡아 어계선조 묘소 뒷산에 있는 조선소나무 특수목을 8그루 골라 일주일 작업끝에 이식한 것이다.

斗巖公派 道南會 發起

지난해 11월15일 부산시내 거제동 송백한정식에서 부산시내 거주하는 두암공파(斗巖公派) 모임인 재부 도남회(在釜道南會) 발기회가 3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두암공 휘 방(埲) 선조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고 파내의 결속을 위해 발기된 것이다.

이날 선출된 발기회 임원은 올해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날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榮奎(九德貿易(株) 會長) ▲부회장=健濟(東興綜合建設 社長) ▲총무=榮奎(稅務會計事務所 所長) ▲幹事=鏞澤 ▲고문=性道·性宰

宗告

종사운영회 釜山주소 변경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李愼成교수가 집필한 「生六臣 趙旅 관련 詩文과 遺蹟地의 意味」라는 논문이 동양한문학회지 13집에 발표되어 지난해 12월30일 출간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일가분들은 1만5천원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 함안 종사운영회나 부산연락처(겉봉투참조)에 신청하시면 댁에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운영회 부산연락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겉봉투 참조해 주십시요.

▲매년 첫번째 발송하는 종회보 속에 「우편대체 무통장 청구서」를 넣고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또는 금년초 협찬 해주신 일가님께는 이 용지를 삽입하지 말아야 하는데 많은 명단에서 찾아 내기가 어려워 부득이 같이 끼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咸安趙氏 宗事運營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趙 雄 來	(參判公派)	〈農協中央會理事〉
趙 又 鳳	(大笑軒公派)	〈農協中央會常務〉
趙 公 濟	(監察公派)	〈農協釜山地域本部長〉

하나된 農協 함께하는 새 千年

黃石山城 聖域化 事業착수

함양군 올해 7천여만원 정지작업 진행

祀堂·義塚등 年次로 建立
在美동포 誠金포함 政府支援

大笑軒公派 一濟會長도 一翼

서기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당시 전 함양군수 大笑軒선생과 郭䞭 안의현감, 그리고 5백여명의 무명용사가 나라를 위해 산화(散華)한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석산성(黃石山城) 현장에 4백3년만인 2천년 올해에 성역화(聖域化) 사업이 착수하게 되었다.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이 사업은 함양군과 황석산성순국선열추모위원회와 함안조씨 대소헌공파의 강력한 추진에서 비롯되었다.

공사 규모는 함양군이 성역화사업의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지난해 산성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4천89평의 땅을 매입하고 올해 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함양읍 토건업자에 의해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함양군 출신 재미교포 장용진씨가 고향의 숙원사업을 위해 쾌척한 3억원과 정부 지원금 등으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올해부터 착수될 사업규모는 순국선열의 위패가 모셔질 사당(祀堂)과 5백여명의 무명용사 무덤(의총·義塚), 기념탑, 기념관, 주차장, 식수대, 화장실 담장등이다.

함안조씨측에서는 대소헌종사회 一濟회장과 행정자치부 永澤(在)국장, 顯宰문화관광부 과장 등의 노력이 컸다.

『월드베스트』 품목에 집중

효성그룹 섬유부문등 2천년 계획

▲趙錫來

효성그룹(회장 錫來)은 2천년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 대비 23% 늘어난 5조1천억원으로 잡고 「스판덱스」 원사와 「타이어코트」, 「스틸코드」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를 통해 이 분야를 「월드베스트」 품목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섬유부문에서 이미 「브랜드·마케팅」을 통한 고객위주의 마케팅을 전개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 한다.

효성의 섬유부문은 국내 최대, 세계 4위를 자랑하는 나일론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타이어코트 생산설비를 비롯, 첨단 신소재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판덱스등의 원사부터 직물, 카페트, 염색등에 이르는 화섬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중공업부문에서도 1조1천4백억원을 매출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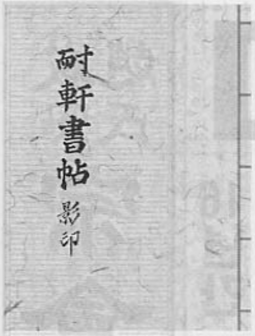
특히 국내 유일, 최대의 송변전 설비종합 메이커인 효성은 7백65KV의 전력(電力)계통에서 한국전력에 공급 가능한 유일의 독과점 업체이며 기술력은 다국적기업 ABB에 이어 2위로 평가받고 있다.

무역부문은 수출 8억불, 매출 1조원을 목표로 정했고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금융자동화기기 메이커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 한다.

〈효성제공〉

耐軒公書帖 影印本 발간

遺作입수한 鏞韶회장 私費로



조선 중종(中宗)때의 명필가, 내헌공(耐軒公) 휘 연(淵)의 유묵인 내헌서첩영인(耐軒書帖影印)이 지난 1월10일 한 후손에 의해 간행 되었다.

내헌공(1489~1564)은 어계(漁溪)선생의 손자, 진산공(珍山公) 휘 동호(銅虎)의 일곱째 아드님이다.

공은 시(詩)에 능하여 이름이 높았고 전서와 예서, 특히 초서(草書)에 일가를 이루었다.

공은 1510년(중종5년) 조정암(趙靜庵)선생과 함께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하셨고 조정에서 벼슬하고 계실때 간신(奸臣) 김안로(金安老)가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사(政事)를 농간하는 것이 미워 벼슬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원벽(院壁)에 파무시(破霧詩)를 쓰고 귀향(歸鄕)한 사건은 너무도 유명 하였다 한다.

〈본보 7호참조〉

서기 1997년 방손(傍孫)에 의해 발견된 이 유작(遺作)을 후손인 종사운영회 鏞韶회장이 입수하여 많은 후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사비를 들여 서첩을 만들었다.

이 초서는 부산 慶星大學校 鄭景柱교수와 후손인 망운공파 一來종원이 번역 하였고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실렸다.

내헌공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당대 명필가 황고산(黃孤山)이 내헌공에게 「대자(大字)는 정경(靜卿, 내헌공의 자)이 나보다 못하고 소자(小字)는 내 또한 정경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다.

宗事運營會의 관리대지 사용료의 현실화 목소리

종사운영회가 관리하는 대지(垈地)의 사용료가 1백여년전에 책정된 그대로 받고 있어 현실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종중이 관리하는 대지(전답)는 원북재(院北齋), 하림재, 채미정, 서산서당, 웅암재 소속으로 모두 5천여평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고 있는 1년간의 사용료는 한가구당(1백평 기준) 보리 두말정도로 금액을 하곡(夏穀) 수매가로 환산하면 2등기준 하여 한되당 8백25원90전×20되는 1만6천5백18원으로 원시적(原始的)인 텃세이다.

물론 문중 대지 사용료를 비싸게 받는다면 비난을 면치 못하겠지만 그래도 현실화는 불가피 한 것으로, 종사운영회는 올해 정기총회때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 할것이라 한다.

大笑軒公14世孫 世系발간

大邱의 幸典종원 直系32代

▲간결하게 제작된 소책자 보책(譜冊)

누구나 자신의 계보(系譜)를 중요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옛날에도 난(亂 전쟁)이 자주 일어나 피난을 갈때면 모든것을 다 버리드라도 땅문서와 족보는 꼭 챙겨 떠났다 한다.

우리들의 선인(先人)들은 그처럼 족보를 귀중하게 모셨다.

그래서 보책(譜冊)이 수백년동안 유지 관리 된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 수성구 구의회의원을 역임한 幸典(顯)종원이 시조(始祖)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32대의 직계 계보(系譜)를 국배판(菊倍版) 8페이지의 소책자로 영구히 보관 할수 있도록 만들어 종사운영회에 보내왔다. 내용은 한문(漢文)으로 선대(先代)의 벼슬까지 상세히 기술하였고 옆에는 한글로 토를 달아 누구나 읽을수 있도록 하였고 소책자 한권이면 1백년동안 외국에 살다가 귀국하여도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참고하고자 하는 종원은 대구 幸典종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趙雄장학회 설립

雄來종원, 10억원 출연으로

고향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수성가한 젊은 기업인이 재산 10억원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젊은 나이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 장학재단을 설립 한 주인공은 본적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두고 현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성도전자통신(주)를 경영하는 雄來(40·東溪公派)종원이다.

雄來종원의 9대조가 靑松에서 함안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터를 닦았다.

雄來종원은 초등학교 교장인 錘來종원의 도움으로 마산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여 삼성반도체에 입사하여 LG정보통신, 태원등에서 근무하다가 92년도 성도전자통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여명의 직원들과 연간 2백억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기업을 성장시켜 왔다. 雄來종원은 지난해 8월 미래사회의 유능한 인재양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향학의지를 불태우는 함안군내 출신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해 10억원을 출연, 「趙雄장학회」를 설립하여 교육자출신 백씨 雄來종원을 재단 이사장직에 추대했다.

조웅장학재단은 2천년 2월중 제1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창립식을 가질 계획이다.

소문중 年末결산

연말을 맞이하여 각파(各派) 문중에서 결산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금대재사(金坮齋舍)에서 망운공(望雲公·내헌공의 둘째 아드님) 후손들의 취회(聚會)가 후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1년간 결산과 2천년 종중이 해야 할 일들을 의논했다.

▲지난해 12월 22일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송정재(松亭齋)에서 동지공파(同知公派)종회(회장 鏞韶)가 후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2천년 사업으로 대산면 독점에 있는 동지공 할머니 산소를 보수키로 했다.

▲지난 12월 22일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도남재(道南齋)에서 두암공(斗岩公) 종회(회장 性道)가 후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1백70여년전에 건립된 낙동강변의 두암공 재사 반구정(伴鷗亭)을 보수하기로 했다.

제41회 사법시험 5명의 一家 합격

▲趙凡濟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26일 발표한 제41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가운데 우리 일가 5명(항열 사용한)이 합격했다.

종사운영회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41회 사법시험에 2만2천9백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우리 일가가 5명이 합격한 것이다. 항열을 사용하지 않은 일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운영회에 전해온 합격자는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鏞河(75세·耐軒公後 新堂公派) 종원의 6남매중 다섯째인 凡濟(36세)종원으로, 凡濟군은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 밖에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성천, 조용훈, 조용래.

새 千年을 맞아 함안조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株)保成
代表理事 趙鑄濟
〈執義公派〉
☎(自宅) 552-0807~8
(會社) 293-6900~1

★은행전지 전자제품도매
理事 趙永浩(濟)
〈節度公派〉
TV, 카메라, 냉장고, 세탁기, VTR, 팩스
전화기, 전자가스렌지, 에어콘 설치공사
LG, 삼성, 대우, 인켈, 롯데오디오
혼수용품환영, 수입품, 신용카드, 결재
직 통 817-4545 전화 807-1930
휴 대 폰 018-562-5898 팩스 807-1930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부산전자 도매상가 1층 156~157호 A/S뒤
한번 만남은 소중한 평생고객으로 모십니다

2천년 1월 17일 개업 하였습니다.
조용범세무 회계사무소
稅務士 趙鏞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230-3 동승B/D 2층
☎051) 465-9797, 9796 FAX (051) 465-9795
휴대폰:017-544-2130

선조의 얼 ⑳

玉峰精舍와 玉峰公

서부 경남의 고도(古都) 진주(晋州)와 우리 咸趙간에 옛부터 인연(因緣)이 깊었던 것이 전설(傳說)로 증명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은 진주시내 동명(洞名) 옥봉동(玉峰洞)과 칠암동(七岩洞)이 선조들의 행적(行蹟)에 의해 명명(命名)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옛 진양지(晋陽誌)에 의하면 「여촉석루상망지지동오리(與矗石樓相望之地東五里)에 옥봉정사(玉峰精舍)가 있다」고 기록되고 있고 玉峰公 휘 舜字께서 세상을 떠난지 5백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 경내 경덕사(景德祠)에서 매년 음력 4월 1일 玉峰公 후손과 진주 유림(儒林)이 함께 향례(享禮)를 올리고 있다. 〈편집자 주〉

趙顯喆

燕山君때 玉峰精舍세워 은둔 七兄弟 자주 만나 七岩洞을 70年 重建하여 기문등 改版

옥봉정사(일명 옥봉정)는 진주시내 세칭 「뒤벼리 모퉁이」옆 남강(南江)변에 있다. 뒷산에는 처녀할머니 전의이씨(全義李氏)의 무덤이 있다.(參判公 휘 毅道와 처녀할머니 전설 기사 종회보 10호 참조)

漁溪 선생의 주손(冑孫·맏손자)인 옥봉공은 서기 1465년(世祖 10년)에 함안에서 태어나 21세때인 1486년(成宗 17년)에 생원(生員)、진사(進士)、양시(兩試)에 합격하고 1492년에 등문과(登文科)하여 승문원(承文院)과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으로 재직하다가 1495년 연산군(燕山君)이 등극하고 4년뒤 사간원을 폐지하자 1498년 晋州로 내려와 이곳에 옥봉정사를 지어 은둔하셨다.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 공은 다시 벼슬길로 나가 居昌 현감을 시작으로 홍문관(弘文館)교리、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홍문관 직제학(弘文館 直提學)(中略) 예조참판(禮曹參判) 1521년(中宗 16년)에는 이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吏曹參判兼 同知義禁府事)、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개성유수(開城留守)를 두루 역임하다가 1527년(丁亥) 6월 28일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공의 형제분이 칠형제(七兄弟)이다. 첫째아우 창(昌)께서는 어모장군(禦侮將軍、정三품)、둘째아우 삼(參)께서는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종三품)、세째아우 적(績)께서는 장례원 판결사(掌隸院 判決事 정三품)、넷째아우 발(發)께서는 사과(司果·六품)、다섯째아우 건(蹇)께서는 무과(武科)로 경상수군우후(慶尚水軍虞候·정四품)였고 막내아우 연(淵)께서는 호가 내헌공(耐軒公)으로 진사(進士)와 의금부 경력(義禁府 經歷·종四품)을 지내다가 金安老가 中宗의 눈을 가리고 폭정하는 것을 보다 못하여 원벽(院壁)에 金安老 비난의 시(詩)를 적어두고 낙향(落鄕)·(종회보 7호에 게재)、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당대(當代) 명필(名筆)이였다.(한국사 백과사전 도록에 등재되어 있고 유품에 대한 기사면 참조)

만형인 공이 1524년 병환으로 晋州 옥봉정사에 내려와 쉬고 계실때 벼슬이 높은 형제분들이 나란히 말(馬)를 타고 들판을 건너 옥봉정사를 자주 찾아 문병을 하자 이곳 주민들이 7형제 칠인들(野)이라(현 진주역 부근) 한 것이 유래가 되었고 공의 외증손 晋州人 河都事 受一、天一 형제가 기문(記文)하여 七岩洞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다.

옥봉정사는 5백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낡아 1970년 파주(坡州)의 후손인 고(故) 在天옹 등 후손들이 중건(重建)하여 과거의 기문과 중건기문을 개판(改版)하였다 한다.

▼ 옥봉정과 경덕사는 숲속에 있다.

典書公 묘역 土質 교체

宗事運營會 해당 各派 代表와 협의 계획

함안군 군북면 원북동 전서공(典書公) 묘역의 토질이 나쁜 탓인지 묘소 봉분 등에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 소나무 씨앗이 날아와 싹이 트고, 잡목 등이 돋아나 종사운영회는 올해 토질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묘역은 10대 전서공 선조 내외분을 비롯한 어계 선조 둘째 아드님 좌윤공(左尹公) 휘 금호(金虎) 그리고 좌윤공 둘째 아드님 절도공(節度公) 선조、판결공(判決公) 셋째 아드님(庭桂子)、절도공 선조의 증손자 도사공(都事公)의 묘소가 있다.

5백여년전 조성된 이 묘역은 토질관계로 봉분이 조금씩 침하되고 잔디가 잘 자라지 않아 종사운영회는 해당되는 각파(各派) 대표들과 의논하여 마사토를 부어 토질을 바꾸고 봉분도 확대시키기고 잔디도 보식한 계획이다.

전서공의 아드님 사정공(寺正公) 묘역은 토질이 좋고 명당이여서 지방문화재 34호로 지정되었지만 이곳 전서공 선조 묘소의 형태가 전국에서 몇 기(基)없는 희귀한 분묘로서 종사운영회가 매년처럼 지방문화재를 신청하여도 기각당하고 있다.

鷹巖齋서 學術발표회

東洋漢文學會 西山書院 등도 參拜

동양한문학회(東洋漢文學會·회장 李愼成 교수) 동계학술발표회가 지난 1월 3일부터 이틀동안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어계 선조 재실 응암재(鷹巖齋)에서 회원과 어계 선조 후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李愼成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어계 선생 재사에서 어계 선생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생육신 趙旅관련 詩文가 遺蹟地의 意味」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수천 동아대교수와 이진오 부산대학교 교수의 강의도 있었다.

일행은 4일 오전 어계 선생 산소를 참배하고 서산서원 충의사에도 참배했다.

▲ 동양한문학회가 펴낸 동양한문학연구 13집

한해 수세 3천5백만원 墓祀·遺蹟 補修費로 사용

종사운영회가 관리하는 종토(宗土)의 지난해 작황은 평년작(平年作)을 이루었다. 어계선조의 위토와 전서공(典書公)、사정공(寺正公)의 묘답(墓畓)등 농토는 논이 4만9천여평、밭이 1만6천여평에 달하고 있지만 밭의 작황은 선대의 벌초(伐草) 삯으로 대체되고 올해 부과된 수세는 3천5백여만원에 달한다.

이 수세가 현금으로 완납됨으로써 선조의 묘사、서산서원 관리비 유적(遺蹟) 보수·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종사운영회는 매년 4월에 감사를 받고 정기총회에 보고(報告)토록 되어 있다.

소문중 소식

▲80여년전에 건립된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소재 남계공(南溪公·어계 선조의 둘째 아드님의 장자) 재실 경모재(敬慕齋)가 낡아 보수(補修)관계에 따른 회의가 지난해 12월 19일 종사운영회 사무실에서 후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경모재 도유사 璟汶(來) 종원이 경과보고와 보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는데 시일을 두고 새로 건립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일단 보수하자고 결론짓고 각 파별로 보수비를 부과했다.

남계공 후손은 다음과 같다. 大笑軒公派、咸鏡公派、場巖公派、判書公派、監察公派、禦侮公派、東隱公派.

▲ 낙성식을 가진 主敬齋

執義公派 主敬齋 重建 낙성

咸安趙氏 집의공파 주경재(主敬齋)宗中은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소재 주경재를 중건하여 지난해 11월 29일 낙성식을 가졌다.

주경재는 집의공파 파조 휘 參의 來孫 휘 瑚(시조로부터 19세、파조로부터 6세) 곤손 휘 浣(7세) 잉손 휘 景樑、景栻、景橪、景杓(8세) 이하 여러선조를 봉행하는 재실로 1968년 문중 鳳來(전、함안화수회장)옹의 주선으로 선조께서 살고 계셨던 연고가 깊은곳에 삼문와 옥울 신축하여 「주경재」라하고 조상의 제사를 봉행해 왔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는동안 재실은 퇴락되어 「주경재」 종중 炳昱 회장등 후손들이 중건(重建) 할 것을 결의하고 대지 1백14평에 건평 19평、대문 2평의 현대식 건물을 6천만원의 예산과 6개월의 공사시간을 거쳐 완공 하였다.

이 문중에서는 예비역소장 및 대학교수 등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남해군

품질 전국 최고

남해유자 영농조합법인

조합장 趙 守 萬 〈譜名 趙萬濟·大笑軒公派〉

대중유자농원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685

사무실(0594)867-8272, 팩스(0594)867-2626, 자택(0594)867-2772, 휴대폰011-599-7347

貞節公 漁溪先祖 事蹟碑苑 踏査 同行記

韓國歷史文化紀行會의 78次 遺蹟답사 행사 同行

慶尙右道 大姓趙氏 양반 逆境딛고 碑苑조성 흐뭇

趙成濟 〈釜山花樹會 諮問委員〉

한국역사문화기행회(韓國歷史文化紀行會) 제78차 유적답사 행사가 지난해 7월 18일 회원 및 가족등 90여명이 두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왕위(王位)를 숙부에게 양위하고 끝내 숨진 단종(端宗)의 한많은 유배지 강원도 영월(寧越)을 찾았다.

이곳을 찾은 또 하나의 이유는 생육신의 한분인 秋江 南孝溫 선생 문집에 기록된 「泥渡淸冷浦 趙翁歛魯山」이라는 忠節의 表象을 百世에 남기기 위하여 1986년부터 88년까지 3년에 걸쳐 영월군 충절 현창회(당시 회장 영월군수 安球淳)에서 주관하의 조성한 「貞節公 漁溪趙旅先生事蹟碑苑」을 답사하기 위해서였다. 오전에 청령포를 답사하고 오후에 碑苑을 답사하였는데 그날을 유난이도 날씨가 더운 데다가(7월중 가장 더운 날씨였다함) 점심 직후라 일행은 온몸에 땀을 줄줄 흘리면서 碑苑 경내 곳곳을 세세히 돌아보니 내가 자랑스럽기도 하였으나 죄송스럽기도 하였다. 내가 사적비를 세우게 된 경위, 필요했던 행정 절차, 시공중에 제기된 문제점, 소요 비용 등에 대하여 아는대로 설명했는데도 많은 질문이 있었다. 내가 충분한 답변을 못한데 대하여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질문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증좌 임을 감안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돌아오는 길에 「함안조씨 참으로 대단하다」 「자기 고장 들에서도 하기 어려운 役事를·근 千里나 떨어진 곳에서 하였다는 것은 嘉賞之事로다」 경상우도의 大姓 함안조씨가 末席에 앉아도 양반이라는 말이 오늘 實證되었다.」는 찬사와 박수를 받게 되어 내가 무슨 개선장군이나 된 것같은 기분이었다.

돌이켜보면 10여년 전에 내가 영월에서 사적비 조성을 주관했던 영월군 충절 현창회 朴泳國 부회장으로부터 들은 두마디 말을 생각하니 사적비원으로 연유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는다는 것은 실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생각이 간절해졌다. 朴泳國 부회장은 어게 문집의 序文을 쓰신 숙종때에 이조판서 우찬성을 역임하신 文敬公 朴弼周 대감의 6세손이고 강원도 도정자문 위원과 김삿갓 유적 보전위원장을 역임하시다가 1993년 83세로 작고한 그분은 당시 나에게 사적비원 조성 계획에서부터 造景까지 근 3년동안 施工과정에 발생하였던 제반사항, 특히 어려웠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저런 大小事를 도맡아 처리하시느라 부산에서 버스를 여섯번이나 갈아타야하는 이곳까지 20여회, 그외에 서울, 보령, 영주 등지로 自費로 내왕하신 趙선생도 짐작하실 분인데 그분에게 노자(路資)라도 보태드린 일 있느냐고 물고서는 「선조를 섬기고 난 후에 선조의 後光을 입어야 할것인데…」하는 말씀이였다. 나는 사적비 조성에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外面해버린 꼴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나는 사적비원에서 찬사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찬사와 박수를 엄연히 받고도 남은 有資格者이신 당시 安球淳 영월군수, 朴泳國 영월군 충절 현창회 부회장님, 趙鏞韶 종사운영회 회장님, 趙俊雄(吉濟) 광주지검 검사장님,(당시 영월경찰지청장) 趙奉顯 영월 당시 화수회장 외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내가 받은 찬사와 박수를 돌려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한국역사문화기행회는 오랜 역사가 남긴 사적(事蹟), 문화유산(文化遺産), 각 고을마다 보전(保全)되고 가꾸어온 전통과 풍물(風物)을 음미하는, 취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宗會報 協贊金 감사합니다

▲大邱花樹會(회장 趙顯麒)=50만원
▲趙鏞守(大邱세영직물 대표·本會諮問委員)=30만원
▲趙顯麒(大邱花樹會長·慶北大工大 教授)=30만원
▲青松 南浦公 宗中(재사중수기념)=30만원
▲趙正來(大邱동영염직(주) 대표이사)=20만원
▲趙辰來(창원 法律事務所 辯護士)=20만원
▲趙昌奎(창원 1、2、3주유소 사장)=10만원
▲趙軒濟(서울 江南 신사동·가우치과병원장)=10만원
▲趙光濟(釜山하단、朝光商會(철물취급))=10만원

함 안

▲趙鏞大(郡北面 東村里)=3만원
▲趙武濟(郡北面 愚溪里)=2만원
▲趙仁濟(郡北面 장명리)=2만원
▲趙龍浩(代山面 花樹會長)=5만원
▲趙鏞祺(代山面 大沙里)=2만원
▲趙鏞相(代山面 大沙里)=2만원
▲趙鏞贊(代山面 大沙里)=2만원
▲趙鏞奭(代山面 大沙里)=2만원
▲趙孝濟(伽倻邑 儉岩里)=5만원

부 산

▲趙龍吉(鏞·釜山鎭區 釜岩洞 함동작크공업사 사장)=5만원
▲趙義平(顯·金井區 書二洞 市民病院 行政部長)=5만원
▲趙鏞君(釜山花樹會 會館管理擔當)=2만원
▲趙鏞翰(凡一洞 소문난 칼국수집)=3만원
▲趙在祥(東義大學校 교무과장)=3만원
▲趙澤濟(연제구 연산동)=1만원
▲趙俊濟(大韓航空 理事 釜山화물지점장)=5만원
▲趙鍾連(顯·鼎冠초등학교 교장)=5만원
▲조상명(水營區 남천동 삼익APT)=5만원
▲趙鏞仁(蓮堤區 蓮山9洞)=2만원
▲조현우(부산진구 가야동 會社員)=3만원
▲趙鉉濟(中區 光復洞 우정棋院)=2만원
▲趙學祚(濟·新平洞 영진당금은방)=1만원
▲趙容浩(濟·水營區 廣安洞)=2만원
▲조현덕(農協 金谷支店에서 송금)=1만원
▲趙性俊(부전시장 함안상회 생닭도소매)=5만원
▲趙永濟(청소년 건전문화육성재단 부산지부장)=2만원
▲趙顯國(安樂洞·혜성문화사 인쇄소)=5만원

서 울

▲趙潤濟(서울 耐軒(公派後 新堂(公派 후손 2次)=3만원
▲趙升濟(서울大學校 수학과 敎授)=5만원
▲趙廷濟(釜山市 東萊區 壽安洞·사업)=10만원
▲趙東來(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장)=10만원
▲執義公派 主敬齋 宗中(재사중건기념)=10만원
▲趙顯雄(東大門區 天安門中國圖書中心)=5만원
▲趙道濟(農協 明洞支店에서 송금)=2만원
▲趙一來(三星生命(株) 本社 홍보팀 課長)=3만원
▲조용준(서초구 양재동 우체국에서 송금)=2만원
▲趙三來(경원대학교 학생지원팀장)=5만원

경 남

▲趙良奎(馬山市 石田洞)=2만원
▲趙富平(昌原市 道溪洞)=2만원
▲趙性五(金海市 大東面 城安)=2만원
▲趙鏞柱(昌原市 八龍洞)=3만원
▲趙宰興(交通安全公社 창원검사소장)=5만원
▲조영선(재·남해군 삼동면 물건리)=5만원
▲趙甲來(統營市 北新洞)=3만원
▲趙鏞大(晉州市 계동 오뚝이상회)=5만원
▲趙在守(前 慶南경찰국 交通課長)=5만원
▲趙聖來(창원시 미창여객 업무상무)=2만원
▲조현래(南海郡 二東面)=3만원
▲조명권(固城郡 영현면)=3만원
▲조용진(統營市 慾知島)=3만원
▲趙明來(鎭海市 慶和洞)=2만원
▲조기태(南海郡 昌善面)=1만원
▲趙鍾洙(합천군 봉산면장)=3만원
▲조영래(巨濟市 執義公派)=2만원
▲조윤제(馬山市 檜原區 龜岩洞)=2만원
▲조문규(泗川市 龍見面)=2만원
▲조명제(固城郡 영현면)=3만원
▲趙性九(馬山市 午東洞)=1만원
▲趙鳳來(鎭海市 泥洞)=3만원
▲조정범(농협 창원 팔용동지점서 송금)=2만원
▲趙炳洛(顯·馬山市 中央洞 삼익APT)=5만원

울 산

▲趙騰濟(住宅銀行 울산기업금융지점장)=5만원
▲조옥련(蔚州郡 彦陽面)=3만원
▲趙宇濟(蔚山市 北區廳 建設課)=3만원
▲조인규(울산시 남구 장생포)=5만원

대구·경북

▲趙鏞哲(浦項 영남특수운(주) 사장)=5만원
▲趙鏞護(大邱전우회 회장)=2만원
▲趙顯基(大邱市 飛山洞 보혜인쇄소)=2만원
▲趙鏞卓(青松郡 縣東面 印支里)=1만원
▲趙圭榮(青松郡 縣東面 印支里)=1만원
▲趙鏞國(青松郡 縣東面 印支里)=1만원
▲趙鏞淳(青松郡 縣東面 印支里)=2만원
▲趙濟明(青松郡 縣東面 印支里)=2만원
▲趙海天(青松郡 縣東面 印支里)=1만원
▲趙榮來(青松郡 縣東面 印支里)=1만원
▲조용준(青松郡 縣東面)=2만원
▲趙銘濟(青松郡 縣東面 昌陽里)=1만원
▲趙昌來(青松郡 安德面 新城里)=2만원
▲趙鏞德(青松郡 安德面 福里)=1만원
▲趙仁濟(慶州市 皇城洞)=3만원
▲趙春來(大邱市 鳳德3洞)=3만원
▲조수범(안동시 송현동)=3만원
▲趙南植(浦項市 北區 竹島洞)=2만원
▲趙若濟(大邱市 大明洞)=2만원
▲조현수(大邱市 大明洞)=3만원
▲조수암(榮州市 문수면)=2만원
▲조태하(경북 봉화군 재산면)=3만원
▲조용만(경주 농협지소에서 송금)=2만원
▲조용철(農協 포항지점에서 송금)=1만원
▲조용하(대구시 중동우체국서 송금)=1만원
▲趙鏞旭(구미시 옥성면)=1만원
▲조용배(대구시 남구 봉덕동)=2만원
▲趙榮顯(英陽郡 石保面 玉溪里)=3만원
▲趙柄浩(鏞·대구시 달성군 구지면)=2만원
▲趙鏞九(浦項市 海兵1師團(元士))=3만원
▲조용호(大邱市 池上洞)=2만원
▲趙聖浩(顯·대구시 동구 효목동)=2만원

대전·충청

▲趙顯相(충북 괴산군 청안면)=5만원

호 남

▲趙鏞敏(光州·書藝家 本會 諮問委員)=5만원
▲趙國濟(光州·仁溪公 宗會 會長)=2만원
▲조용주(全南 莞島郡 金一邑)=2만원
▲趙顯良(全北 김제시 광활면 음파리)=6만원
▲趙忠廣(全南 高興郡 남양면)=3만원
▲趙三來(全北 장수군 장계면)=2만원

■趙京來 종원의 주소가 전북 정읍시 소성면으로 바로 잡습니다.

(1월 10일 마감)

西山書院 參拜

▲지난해 11월 1일 晋州 두루회(詩會 회장 이병찬) 회원 12명이 참배.

▲지난해 11월 2일 釜山 교육대학교 연수생 일동 20명이 李愼成 교수 인솔로 참배.

▲지난 1월 4일 東洋漢文學會(회장 李愼成 교수) 회원 30명이 학회 마치고 어계 선조 묘소를 참배.

▲지난 1월 11일 晋州사범학교 출신 모임인 青友會(회장 趙顯大) 회원 15명이 생육신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忠義祠와 어계 선조 산소를 참배.

宗員動靜

▲趙鍾連(顯)종원=1999년 9월 1일 釜山 정관초등학교장으로 영전

▲趙騰濟종원=11월 5일 주택은행 울산기업금융지점장으로

▲趙昌來종원=11월 19일 대구지방경찰청장에서 중앙경찰학교장(治安監)으로

▲趙芳來종원=12월 14일 LG에너지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趙鏞健종원=12월 15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2부주간

▲趙潤來종원=12월 22일 LG캐피탈 인사, 총무본부장

▲趙在郁종원=12월 22일 LG캐피탈 部長 승진, 江南지점장으로 영전

▲趙定奎종원=12월 30일 경남도실업대책과장으로

▲趙鏞澤종원=12월 30일 朝鮮日報 總務部長으로

▲趙鏞僴종원=12월 30일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趙明來종원=12월 30일 現代建設 理事로 승진

▲趙東來종원=2000년 1월 4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장으로

▲趙顯五종원=1월 4일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으로

▲趙鏞昊종원=1월 4일 한국석유공사 홍보실장으로

▲趙光來종원=1월 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로켓체계개발그룹장

▲趙在勝종원=1월 8일 TBWA 코리아 제작담당 理事

▲趙宣濟종원=1월 10일 교육공제회 이사장에 취임(前교육부 차관)

▲趙在新종원=1월 11일 특허청 전자심사담당관실 과장으로

▲趙顯重종원=1월 11일 경상남도 어촌진흥담당관으로

▲趙顯澤종원=1월 13일 효성섬유PG 스판덱스PU장 전무로 승진

▲趙顯俊종원=1월 13일 효성 전략본부 상무로

▲趙顯文종원=1월 13일 효성 전략본부 이사로 승진

부 음

▲종사운영회 이사(理事)이신 鎭升 종원의 자당께서 12월 3일 숙환으로 함안군 산인면 운곡리 자택에서 별세, 향년 79세.